글로벌교육사업본부

Janie 강사

"SPEAK OUT LOUD! 자신감을 갖고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학습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강사님의 간략한 프로필 소개 부탁합니다.

영어이름은 Janie 한국이름은 옥채연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버지니아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를 졸업하고 난 뒤, 한국에 다시 귀국했어요. 한국에 귀국해서 해외광고 미디어랩에서 약 5년간 일을 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던 패턴에 한계를 느끼던 차에, 영어스터디 리더를 파트타임으로 잠깐 했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함께 소통하는 일에 매력을 느끼고, 시작 할거라면 제대로 배우고 시작하자란 생각으로 숙명여대 TESOL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성인영어학원 회화 수업들 그리고 캐럿과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어 많은 회사들의 기업체 강의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 방법이나 교육 경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현재 현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시험 점수/수능 위주의 교육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 듯 해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단어나 어휘는 너무 훌륭하신데 Speaking 하시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표현들이 너무 딱딱한 경우들이 많이 보여요. 하지만 점점 미디어나 여러가지 소셜을 통해 영어에 노출되는 빈

뮤지컬 관람을 갔을 때, 포즈를 취해 보고

도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점점 자연스러운 영어를 배워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다 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영어 학습 방법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SPEAK OUT LOUD (큰소리로 말해라)"입니다. 문법이 조금 틀리고, 단어를 조금 모르더라도 자신감을 갖고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말을 하실 수 있게 이끌어 주고 또 그것에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학습자들의 니즈에 맞춰서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수업이 되도록 이끌려고 합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수업을 들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업 준비를 합니다.

영어 강사로서 본인의 Mission이나 꿈이 있다면...

제가 가르치는 수업의 학생들이 자존감,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업무에, 삶에, 배운 것들을 그리고 그 자존감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캐럿과 함께 처음 수업이 HPPK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이 총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3년을 진행했어요. 처음엔 수원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다가 판교로 옮겨서도 같이 하고, 코로나 이후엔 온라인 수업들까지도 진행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 회사의 수업을 하다보니 예전에 제 수업을 들으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제 수업을 선택해주시거나 일부러 Janie 수업을 들으려고 본인 회사 일정을 조정을 했다 이야기를 하셨을 때, 또 그동안 들었던 영어 수업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배웠다 라고 말씀해주셨을 때, 내가 그래도 이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진 않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있진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활에 비타민이 있다면? 힘을 얻는 에너지가 무엇인가요?

제 생활의 비타민은 종교 & 가족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생각한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수업이 갑자기 취소가 되고, 또 계획되어있던 수업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딜레이가 되기도 하는게 너무 당연한 일들이였고, 불확실한 상황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것이 저에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한참 코로나가 피크였던 일년반 전에 결혼을 해서, 어디도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른 아침수업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내려주면서 응원해주는 남편. 언제나 기도해주시는 부모님들 & 가족들, 이제 막 1살이 되어 귀여운 개인기들을 보여주는 조카. 이들이 없었으면, 제가 웃으며 힘을 내서 수업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서 현재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퍼펙트 하려 하기보다는 꾸준하게 해야한다고 강조해요. 우리가 모두 Non-native speaker 이기때문에 당연히 퍼펙트 할 수 없으니 꾸준하게 노력해야 퍼펙트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이야기 해드립니다.

또한 수업만! 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리뷰와 추가 공부 없이 일주일에 딱 1시간 2시간 수업을 들으셔서는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이기에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영어를 듣거나 보거나 읽으시는 스스로의 루틴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려요.

COVID-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효과와 학습자 호응도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비대면 수업은 학습자/강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학습자도 집중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강사는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기 위해 톤도 더 높혀야 하고, 핸드제스쳐나 얼굴표정도 더욱 크게 사용하면서 에너지 있게 수업을 해야만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숫자가 많았던 오프라인 수업 보다 1:1 이나 1:4 정도였던 온라인 수업은 아무래도 학습자의 참여도나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캐럿글로벌이 타사와는 다르게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캐럿글로벌은 저에게 정말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각 수업을 담당해주시는 매니저님들께서 최대한 강사에게 좋은 방향으로 맞춰주시려고 노력해주시고, 가끔 학습자님과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먼저 해결해주시려고 노력해주시는 모습들에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슨 캐릭터 전시회 때

코로나로 인해 가까운 인천으로
카라반 캠핑으로 다녀온 제 아쉬운 신혼여행 사진